

전남산 김 미역 전복, 日·美·中 입맛 잡다

전남 수산물 수출 18% 증가

엔화강세 맞물려 미·일 수요 ↑

툇은 생산량 감소로 15% 줄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과 비교해 18%가량 증가했다.

도 김(17.2%↑)을 비롯해 대구(17.3%↑), 미역(51.8%↑)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전체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은 6천400여만달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천400여만달러보다 18.2%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김이 2천600여만달러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33.7%나 올랐다.

전복은 1천200여만달러 13.3%, 미역은 940여만달러 17.8%, 넙치는 240여만달러 51.4% 각각 상승했다.

반면 툇은 575여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하락했다.

김과 전복 등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미국,

일본 등에서 수요가 증가했고 엔화강세로 국내산 수산물이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툇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다.

전남의 수산물 수출액은 전국(7억9천500여만달러)의 8%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전남산 수산물 상위 5개 품목은 김(37%), 전복(23%), 툇(16%), 미역(9%), 다시마(2%) 등이다.

전남산 수산물 상위 5개 수출국은 일본(59%), 미국(20%), 중국(9%), 캐나다(4%), 태국(2%)이다.

전남도는 김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수출물류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사업비 3억원의 국고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산 삼치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명품 생선'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 상반기 수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6월 삼치의 중국 수출 실적은 1819만4000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다. 물량으로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 51.4% 많아졌다.

해수부는 중국에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강한 '웰빙 푸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춘 고부가 가치 신선수산물 수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위험자산 선호 현상 커져

완만한 상승기조 이어질 듯

화학·화장품 등 실적주 주목

코스피지수가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증시의 훈풍 속에 지난 주 5거래일 모두 상승하며 2.75% 올라 2017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기관매도가 5일 연속 지속되었지만 개인들이 매수하며 700포인트를 겨우 회복하였다.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 순매수이다. 브렉시트 직후 안전자산 선호로 외국인 자금의 급속한 이탈을 우려했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은 브렉시트 결정된 6월 24일부터 3일간 순매도를 보인 후 29일부터는 순매수기조를 유지하며 지난주까지 2조 5631억원의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동안 기관은 지수상승에 따른 차이실현 매물과 펀드환매가 증가하며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 시장의 우려는 컸지만 글로벌정책 강화 기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다시 나타나며 이머징국가의 환율과 증시는 안정세를 찾아갔다. 지난 주에도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8월경에 통화완화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고 미국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기준금리인상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시기를 12월로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나며 주식시장 상승을 부추겼다.

한국은 이머징국가중에서 환율의 안정성과 주식매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준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주 월달러 환율이 1133원대까지 하락해 연중최저치에 근접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글로벌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국증시에 외국인 순매수요건들이 갖춰진 상황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적 개선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강한 순매수를 보인 것이며 이번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비차익프로그램매매(선물시장과는 무관하게 현물시장에서 15개 종목 이상을 묶어서 매매하는 거래)를 이용해 지난주에만 8000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 순매수종목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POSCO,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등 업종대표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이번주에도 선진국의 금리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예정되어있는 유럽중앙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와 28~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의 자산매입규모 확대 가능성 등 추가적인 정책완화 기대감이 남아 있어 유동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주부터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요기업들의 실적개선여부에 시장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화학, 화장품, 의료,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되며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추세는 선물포지션 변경을 통해 빠르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적개선과 외국인 선물포지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실적개선발표에 따라 코스피지수 박스권 상단의 돌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니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노화카웨이3호’ 취항식

전남농협·노화농협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와 노화농협(조합장 강종구)은 최근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이목향 선착장에서 ‘노화카웨이3호’ 취항식을 했다.

노화카웨이3호는 500t급 철부선으로 노화산양항과 해남땅끝항을 왕복운항(30분 소요)한다. 최대 승선인원은 283명으로 기존 노화카웨이2호 보다 210명이 더승선할 수 있으며, 차량탑재는 중형 승용차 기준 42대로 하계피서철과 명절에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다.

노화카웨이3호는 완도 노화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해상교통 편의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하루 11회 왕복운항한다.

강남경 본부장은 “노화카웨이 3호의 취항으로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통한 복지농촌건설 및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부흥이 되길 바라며, 승선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름휴가 농촌체험 사진 공모합니다”

농식품부, 다음달 18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주관하는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사진공모’가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휴가 네GO(먹GO, 보GO, 놀GO, 자GO) 두근두근 농촌여행’으로 지난달 1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중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여행하고 찍은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먹GO(식재료, 식사 모습 등), 보GO(농촌 경관), 놀GO(체험프로그램 활동), 자GO(숙박장소에서의 활동) 등 총 4개로 농촌여행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 응모는 농촌체험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을 통해 가능하며 마감 시각은 8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은 9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대상 1점, 최우수상 부문별 1점, 우수상 부문별 1점, 입선 부문별 5점 등 총 29점을 대상으로 총 1천만 원(대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농촌 여행만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사진을 공모해 농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농식품부·aT,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7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잔류 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과 함께 판매 상품에 생산자 이름, 생산지, 출사(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